

1. 초기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1919~1923)

1) 1920년대초 청년단체

(1) 순천청년회

1919년 하반기 이래 전남 각지에서 청년단체가 속속 조직되는 가운데 순천에서는 서병규(徐丙奎), 이충호(李忠鎬) 등이 순천청년회를 발기하였다. 이들은 청년회기성회를 조직하고 규칙초안 제정위원 등을 선정하여 조직 골격을 짜는 한편 부지런히 동조자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1920년 7월 11일, 회원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청년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는 서병규의 개회사, 이충호의 경과보고, 이영민(李榮珉)의 취지 설명, 성정수(成禎洙)의 소감사, 김양수(金良洙)의 규칙초안 낭독, 규칙 통과, 임원 선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7월 31일에는 순천공립보통학교에서 발회식이 거행되었는데 240여 명의 회원과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였다. 발회식은 회가 제창으로 시작되어 회장의 식사, 각지 청년회 6개소의 축전 낭독, 내빈 축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날 밤 순천청년회는 기념연극을 공연하였는데 1,0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들어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당일 모금된 의연금은 4,600여 원에 달하였다. 창립총회 및 발회식에 출석한 회원 규모, 내빈수, 기념연극 관람자수, 의연금액 등에 드러나듯이, 순천청년회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여망을 한껏 받으며 출범하였다. 그러나 조직생활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의 전형을 창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순천청년회가 활동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실천에 착수하게 된 것은 1921년에 들어서부터였다.

1921년 4월 1일 임시회관 연자루에서 순천청년회 제2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은, 첫째 농업을 개량하기 위해 본회 실업부에서 모범적으로 이만보 이상의 논을 경영할 것, 둘째 청년야학을 개최할 것, 셋째 연합 토론회·강연회를 개최할 것이었다. 첫번째 사업계획의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세번째 계획은 1921년 7~8월 창립 1주년을 기념한 현상토론회, 도진호(都鎭鎬 : 경성불교청년회장) 초청강연회 등으로 실행되었다. 야학도 1921년 11월부터 개설되었다. 순천청년회는 회장 아래 강론부·교육부·실업부·사찰부·운동부·의사부 등을 설치하였다. 1920~1923년 각 총회에서 선출된 순천청년회의 부서별 간부진은 다음 표와 같다.

순천청년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은 서병규·이충호·이영민·성정수·김양수 등인데, 거의 순천친목회(당시 순천친목계)의 성원이었다.(서병규·이영민·성정수) 초기 간부 가운데 박영진(朴永震)·이정호(李貞鎬)도 순천친목회 회원이었다. 순천친목회는 1918년 순천군 인사 23명이 문화 향상을 내걸고 조직한 친목계로서, 1923년 8월 계를 회로 변경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1910년대 순천친목회로 응집되었던 활동력은 그 제한이 다소 풀리고 합법공간이 창출되자 청년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1920~1923년 순천청년회의 부서와 간부진

부서 시기	회장	부회장	강론부	교육부	실업부	사찰부	운동부	의사부	기타
1920. 7. 11.	이길홍	서병규	김양수	김병옥	김성초	김영숙	김봉전	이영민	총무 김양수
1921. 4. 1.	이길홍	서병규	박영진	정원택	이태규	이충호	김봉전	이영민	총무 김양수
1922. 4. 정기총회	서병규	이충호	이창수	이정호	이태규	김재환		김병옥	총무 박한옥, 회계·서기 정시환
1923. 6. 2. 임시총회	서병규	김형남 (사퇴) 이충호 (보선 8.10)	정달조	문장백		최재옥	우기환	이정호	총무 박승봉, 서기 정시환 회계 김석희, 의사부원 박용석 박한옥 서정구 윤선중 이창수

출전: 『동아일보』 1920. 9. 1 · 1921. 4. 22 · 1922. 5. 2 · 1923. 6. 16.

창립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고 후에 회장으로서는 한동안 순천청년회를 이끌어간 서병규는 상사면, 해룡면 등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다. 서병규는 1924년 3월 민선 전라남도평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28년 8월에는 자본금 3만 2,000원의 순천직물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김양수는 순천기독교계의 지도적 인물로서 미국 유학 중에 김도연(金度演)과 함께 『5·1신문』 발간에 노력하였으며, 순천의 대지주이자, 대표적인 상공인인 김종익(金鍾翊)이 1933년 조선제사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감사역을 맡았다.

성정수는 1922년 4월경 순천기독교면려청년회에 300원 기부를 약속할 정도의 자산가이며, 1928년경에는 승주금융조합 조합장이었다. 박승봉(朴勝奉)은 황전면 등지에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로서 1922년 4월경 순천기독교면려청년회에 400원 기부를 약속할 정도의 자산을 소유하였다. 박승봉은 1923년 10월 순천영어학습회를 결성하고 강의를 전담하는데, 근대적 고등교육을 받은 순천사회 최고의 지식인그룹에 속했던 인물이었다. 최양섭은 읍내에서 잡화상을 경영했으며 1928년경에는 순천면협의회원이었다.(이상 자산가그룹)

이영민은 1882년생으로서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다음 보통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1922년 이래 동아일보사 순천 주재기자로 활동하였다. 이창수(李昌洙)는 1886년생으로서 영암군 명남학교를 중퇴한 후 면작조합 주사, 금융조합 서기 등을 지냈으며 1920년 8월 이래 동아일보사 순천분국장을 시작으로 조선일보사·시대일보사 기자 혹은 지국장을 역임했다. 이영민·이창수는 1923년 노동운동과 소작인운동이 발흥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지도했으며, 순천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실천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박영진은 1897년생으로서 1913년 순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이후 보통학교 교사, 순천축산동업조합 서기, 순천군청 고원(雇員)을 지내던 중 1923년 일본대학 전문부 사회과에 입학하여 1925년 3월에 졸업했다. 이후 호남은행 순천지점 등에서 근무하는 한편 순천 사회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태선은 1898년생으로서 연희전문학교 1학년을 수료하고 동아일보사 순천지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1920년대 중후반 순천 청년운동을 이끌어나갔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길홍(李吉洪)은 청년회 창립을 주도한 이들에게 추대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1922년 10월경 동아일보사 순천직할분국장을 지냈으며, 1927년 10월 신간회 순천

지회의 발기인과 준비위원으로 활약했다. 이외에 김병옥·김영숙·이충호·정시환도 1922~1923년부터 동아일보사 혹은 조선일보사의 순천 주재기자로 활동하는 한편, 노동운동·농민운동에 참여하였다.(이상 지식인그룹)

이처럼 순천청년회의 창립기 간부진은 지주, 상공인, 교사·기자 등 지식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지주·상공인 등 자산가그룹은 1920년대 중반 노동운동·농민운동이 격화하고, 청년운동 영역에서도 무산계급적 입장을 표명하게 되자 운동 일선에서 물러났다. 일부는 도평의원, 면협의회원을 지내면서 일제에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다. 소부르주아적 지식인그룹은 새로운 사상 사조인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하거나 동조하면서 1920년대 중반 이래 노동·농민·청년·사상운동을 지도하였다.

순천청년회는 순천군 일원을 활동범위로 삼았다. 이 점은 그들이 면단위의 지회를 설치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순천청년회의 별량면지회는 1921년 4월 8일 별량면 봉림리에서 창립되었다. 순천청년회장 이길홍, 순천기독교면려청년회장 이기풍(李基豊)이 별량면지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200여 명이었는데 이는 농촌지역 청년의 응집력이 읍내보다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별량면지회의 초기 간부진은 지회장 심선현(沈宣玆), 부회장 김인채(金仁采), 총무 김학련(金鶴練) 등이었다. 심의현과 김학련은 1922년 말~1923년 초 별량면 소작인단체의 결성을 주도하고 간부로 활동하였다. 순천청년회 지회가 다른 면에서도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